고창군 식초산업 육성 날개 달았다

복분자특구에 식초산업 추가 지정
가공식품 개발·유통체계 현대화
플랫폼 등 기반 구축 4대 사업 추가

고창군이 연 '찾아가는 식초학교'에서 교육생들이 자신이 담근 식초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고창군이 '복분자 산업특구'에 식초산업을 추가해 대한민국 6차 산업화 선도에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계획'을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고창군은 전국 최대 복분자 재배지(전국 35%)다. 이번 특구계획 변경으로 고창은 기존 복분자 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식초산업을 추가해 가공식품 개발, 유통체계 현대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화사업은 기존 복분자 진흥산업에 발효식초 공유가공 플랫폼 구축, 식초산업화 기반조성, 복분자를 이용한 K-발사믹식초 생산, 고창식초의 과학화와 마케팅 지원 등 식초산업 육성기반 구축 4대 사업이 추가됐다.

군에 따르면 특구사업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385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05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442명으로 분석됐다. 특구사업을 위해 복분자·식초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를 위한 특허법이 신규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복분자 재배 농지위탁경영을 위한 농지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는 출발점에서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 지정이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를 이끄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을 특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식초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민간기록물 공모전 749점 수집
대상에 '1940년대 광복군 포대·표식'

최우수상 2건 등 17건 선정

도정공장 관련 기록물.

익산시가 지역의 기록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 개최한 '제1회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 대상에 1940년대 한국광복군이 사용했던 포대와 표식을 선정했다.

올해 처음 '숨겨왔던 너의 기록을 보여줘'라는 주제로 8~10월 공모한 결과 749점의 익산지역 근현대사 기록들이 수집됐다.

이들 기록에 대한 두 차례 평가를 통해 대상 1건, 최우수상 2건, 우수상 4건, 장려상 10건 등 총 17건을 선정했다.

대상을 받은 포대와 표식은 한국광복군이 활동한 조령지대(남경)에서 1940년대 함열역으로 보낸 것이다.

당시의 독립운동을 알 수 있어 역사적 가치가 높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최우수상은 1900년대 이리 농림학교 졸업 기념 사진첩·임업 실습일지 등의 기록과 춘포면 도정공장 운영 당시 사용했던 곡물검사 기준품·쌀 포대·쌀 등급을 표시했던 고무인 등의 기록물이 뽑혔다.

이 밖에 1970년대부터 2020년까지 쓴 일기, 이청천 장군 대동청년단 결성식 참석 사진, 1950년대 익산의 생활상을 알 수 있는 자서전 초고 원고, 33년간 교사로 재직하면 받은 월급명세서 및 교무수첩, 민주화운동 관련 포스터 등이 상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상금을 준다.

익산시 민간기록관리위원회는 "공모전에 익산의 교육, 독립운동, 생활상을 알 수 있는 근현대의 기록물이 많이 수집돼 고무적"이라며 "소중한 익산의 기록들을 전시·교육 등을 통해 시민과 공유할 수 있는 시민기록관이 설립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전시민 안전보험 가입

단일사건 당 1000만원까지 보장

남원시가 각종 재난 및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으로부터 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전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남원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남원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운영 중이라며 이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해지된다고 밝혔다.

보험은 재난이나 대중교통 이용사고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은 시민에게 단일사건 당 1회 1000만원 한도의 보험금이 지급되며 개인 보험과의 중복보상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대표적 사고 사례로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농기계 사고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1개 항목이다.

남원에서는 지난해의 경우 9건의 보험금 청구건이 발생해 총 613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농기계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이 가장 많았고 화재사고 관련 건이 뒤를 이었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재난·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우선이 돼야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한 시민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남원시의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재난피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지난 8일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정읍시 지역단위 푸드플랜 수립 연구용역' 제2차 중간보고회가 열렸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중간 보고회

시민들 안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정읍시가 시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 종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정읍시는 시민들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먹거리 종합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푸드플랜은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과제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 등 하나의 선순환 체계로 관리해 시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2차 중간보고회에서는 구체적인 푸드플랜 비전과 전략 수립, 학교(공공)급식지원센터 설립 방향과 운영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시는 최종보고회까지 세부적인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특히 농가 교육 등을 통해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시 관계자는 "중간보고회를 통한 푸드플랜 비전과 전략을 토대로 시의 정책 방향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푸드플랜이 올바른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최상급 한국난 작품들 순창에 모인다

13~14일 체육센터서 전시대회
희귀난 400여점 전시…79점 시상

순창에 국내 최상급 한국난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순창군은 (사)한국난보존협회가 함께 오는 13일과 14일 순창국민체육센터에서 '2021 제10회 한국난 전국 전시대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한국난 전국 전시대회'는 매년 우수품을 대거 선보이며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켜 난 문화 활성화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중·일 춘란, 풍란 ,석곡, 한란 등 400여점이 전시되고 대상과 최우수상 등 난작품 79점에 대한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좀처럼 보기 드문 한국난 전시회에 난 애호가 및 일반인 등 전국에서 1만~2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주최 측은 예상하고 있다.

순창난보존협회 관계자는 "전국의 난 애호가들이 애지중지 소장한 최고의 작품을 순창에서 선보여 한국춘란의 가치를 대내외에 알리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군 관계자는 "한국란 전국 전시대회가 순창군에서 개최되는 것을 축하드린다"며 "한국춘란의 아름다움을 통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장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군산시 치매·정신건강센터 나운동 이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도 입주

군산시의 치매 관리와 정신건강 전담 기관인 치매안심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중독관리지원센터가 수송동로에서 공단대로 482(나운동)로 이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시는 치매안심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지원센터 등이 사용할 나운동 현 위치의 기존 건물(지상 5층, 연면적 1647㎡)을 2019년 매입해 리모델링 했다.

1~3층은 치매안심센터(상담 등록실, 검사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강당), 4층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상담실, 프로그램실 등), 5층은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팀)로 구성됐다.

이 곳에는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군산시 관계자는 "센터는 세대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치매 예방에 보탬이 되고 누구나 쉽고 편하게 건강정보 공유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